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장	이영환
편집위원	이영환
발행처	외대신문사(서울 2-7128, 961-4151)
외대학보	(02)961-4152, (0335-30-1112)
	130-791 서울시 용인군 용인읍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오산읍 향신리 189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11일 [주간]
등록번호제 다253호

THE OE DAE HAGBO

제 591 호 1992년 11월 3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학자·대선의 최대목표 '대학교육개혁'

3당, 대학문제 외형과약에 치중... 민민운, 학원자율성 보장 우선 표명 서울·용인 학자요구안 사회적 제도개혁 투쟁으로 심화되어야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정책개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본교의 경우도 이러한 시대 상황에 따라 서울·용인 캠퍼스별로 교육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대학교육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학내의 경우 학원자율성은 이러한 사회적 조류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글을 실으려 한다.

<편집자>

3당의 대학교육정책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자, 민주국민3당은 대학교육에 대한 당차원의 정책들을 차례로 공표하고 있다.

민자당의 김영삼 총재는 지난 10월26일차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집권당이나 다름없는 집권당으로서의 대학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안 인터뷰에서 그는 현재 대학의 문제점을 크게 3대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대학은 교육예산이 현재 GDP의 3.6%(83조원)인 상태에서 5% 수준(20조원)으로 증액하고 이에 따른 시설 투자를 촉진하며, 교육예산에 있어서도 시설투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이예다른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교수의 신분보장 및 대학행정의 분리, 학원내에서의 학생의 학사행정 참여에 대해서는 미온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교육부문에 있어 개선해야 할 교육현실을 크게 제도적인 면, 행정적인 면, 재정적인 면으로 나누고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현재의 교육정책이 민주화되지, 분권적 교육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교육개혁이 교육부에



교육개혁이룩하고 참교육을 실현하자

현재의 학자는 대선속에서 대학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 되어야 한다.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되고 있어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일반 행정위주의 교육행정 운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고, 재정적인 면에서는 교육예산이 정부 총예산의 22.7%로 당시만 6공 이후 교육정책이 다른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나 열악한 교육환경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당은 교육개혁에 대해 △대학교육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길 것 △교육부지의 '교육시설투자촉진법'을 제정,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3당의 대학정책은 지난 10월30일 서울 강선체육관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날 대회에서는 주로 교육부차무부와 대학입학정원의 자율화부분이 강아되었고 3당 모두 비슷한 입

장을 위한 것으로 보였다.

민민운의 교육개혁 움직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민주개혁연합'을 공표하고 이 중 대학교육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특히 대학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교육부, 학교법원을 상위로한 지휘명령체제는 철폐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대학운영에 있어서는 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특히 총(학)장의 권한을 통제하고 학교 '교수협의회'의 결정기구화 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재단의 학사행정 간섭 및 교수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교수제임용제도'의 시행을 제시하고 교수, 강사의 신분보장을 제시했다.

교육재정에 있어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GNP

의 5%수준으로 증액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개혁 및 부실 사립학교는 국공립화 해야한다고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용인 학자의 움직임

서울캠퍼스는 시월제 이후에도 대학원교과와 외대발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 전면과외의 움직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선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각 학과발전위원회는 비롯한 각종단위의 조직화, 학과별, 단과대별로 구체적인 외대발전의 내용들을 만들어 내어 기존의 요구들을 중앙으로 집중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대발전의 내용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핵심사라고 되고 있는 '각과으로의 행정-시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대학당국과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 관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자곡 중 부지에 대한 입장이 '교육을 부지로 사용한다'라는 대학당국의 주장과 '국적으로 '벨트' 부지를 사용한다'라고 명시하는 학생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예다른, 현재의 열악한 캠퍼스 부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익한 대안인 자곡 중 부지를 캠퍼스 부지로 명시하고 전방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학내의 여론도 심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측은 학내 주체는 물론 동문, 학부모를 포함한 '범외대인 차원'으로 전국단위로 결성되어 있는 그린벨트 대책위와 연대, 이번 대선 공간에서 부각되었던 그린벨트 지역 실정이 생존권을 위협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이를 정책화시켜서 교육용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백차를 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외대발전위원회' 구성도 대학당국, 재단의 인사안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 주체들의 요구와 이해를 구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구로 변성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전방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대학에서 구성되고 있는 '대학발전위원회' 형태의 최고의결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함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용인캠퍼스는 오늘(3일) '대선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대선이 있어서 민주정부부수립을 위한 민주화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대학원 '학원민주화'와 '사학'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가 일깨워 준 '상식'

▲요즘 안기부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절친했던 어떤 시절에는 뽀얀 피부로만 알고 있던 '간첩'이라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몇명씩이나 잡아놓고, 그들에게서 직접 지백까지 받아내고 있으니 그 능력이 과연 놀랄 만하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안기부가 또 다시 기세등등 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상정된 안기부법 개정논의는 민자당의 반대로 해결점을 못찾고 있으며 안기부의 활동범위는 그칠 줄을 모른다.

남북교류회담에 안기부장 복보다도 남북 대면으로 참가해서 남북화해에 관을 끼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던 사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안기부가 관행 그 어떤 정부 부서나 기구보다도 위에 군림하면서 활동범위를 계속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국민들은 안기부의 놀라운 위력 앞에서 그 지 밀리고 감탄만 하고 있지는 않는다. 안기부의 무적 휘발해진 움직임이 오히려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들을 우롱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간첩단 사건이 발표되었을 때도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했고, 지금도 그 의혹 중에는 속신 의혹 해명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간첩사건은 대선시기만 되면 으레 터져 나오는 사건'이냐며 비문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안기부가 간첩단 사건을 통해 의도했던 바를 우리 국민들이 벌써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간첩사건은 더 이상 위기에 몰린 정권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간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야인사들을 구속하고 정치권의 관원들을 공중연히 퍼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이용해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대선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려는 속셈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의 전략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안기부정권이 의도하는 바를 깨닫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를 통해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안기부는 구태의연한 반동-테러포기론을 이용해 국민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안기부가 그 어떤 국가 권력보다 위에 존속하고 있다면, 그 위에는 국민들이 존속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안기부법 개정논의가 간첩단 사건을 접두어 시들시들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윤호

보장방위 위해 단계적인 대학당국과의 기구미련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구미련에 있어서는 현재의 '왕선발전위원회'를 용인캠퍼스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여 교수, 학생, 직원 및 용인캠퍼스의 발전방향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대학원 '학원민주화'와 '사학'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과제

사회적인 대학교육정책의 표명은 한층정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단지 현재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의 열의함으로만 귀착시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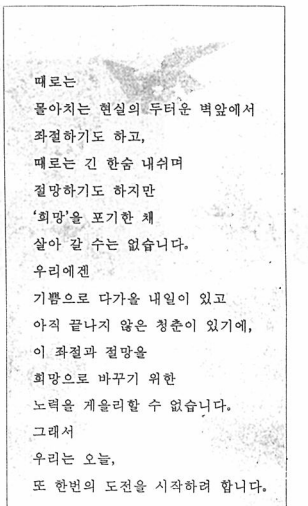
한국의 대학이 직면한 현실은 이

진리를 갈구하는 그대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제10회 외대학술상·제30회 외대문학상 작품 모집

제10회 외대학술상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모집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개 부문(원고 80매 내외)
심사위원 및 상금: 추후 발표
제출처: 외대학부 학생기자실(서울: 학생회관 203호, 용인: 학생회관 212호)
마감일: 11월10일(화)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어치는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 한숨 내쉬며
절망하기도 하지만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내일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청춘이 있기에,
이 좌절과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한번의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30회 외대문학상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모집분야: 시(3편 이상)
소설·평론·희곡·번역(원고 70매 내외)
심사위원 및 상금: 추후 발표
제출처: 외대학부 학생기자실(서울: 학생회관 203호, 용인: 학생회관 212호)
마감일: 11월10일(화)
※순수창작품에 한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대학보

사설

믿음과 신뢰로 외대발전 이룩하자

최근 우리대학교 총학생회는 캠퍼스 이질문제를 비롯한 학교에 제기된 여러 가지 학내외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내외 문제를 수습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데 우리대학은 작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행정의 차질은 결국 우리모두의 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왜 우리대학이 이러한 단계에 까지 오게되었는지 안타깝게 마음 급원하지 않다. 우리대학의 학정이나 나쁜 수확물인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학생의 본인수입을 거부하게끔 되었나 하는데 동정을 이치지 않는다. 우리 이문동 캠퍼스의 교육환경 열악함은 이제 오노는 문제 가 아니다. 왕산이전인외대발전 계획에 따라 이문동 캠퍼스에 대한 시설수리의 부진이 그 원인이었다. 학생들의 주장은 이것을 떠나 현재 복지대도 부어있는 자폭물도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지는 것이고 학교당국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업을 하고 인격을 연마해야 할 우리 학생들의 황금같은 시간을 학교와의 협의를 위해 허비해야하니 연민의 경이 든다. 캠퍼스 이전 이유는 다름아닌 이문동 캠퍼스의 협소와 시설낙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학교당국은 보다 일찍 학교의 면 발전을 위해 우리대학 구상안대로 부록 공판배를 작성하여 주도적으로 모든 계획을 추진하였더라면 오노와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주장과 생각대로 모든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전에는 논지대에 놓여있는 것 이외에도 토지의 지형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10여년간 추진해온 우리대학의 왕산 캠퍼스의 발전계획에 따라 커다란 차질을 가져온다.

캠퍼스의 이전이나 기타 교육여건의 개선등의 문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 외대구성원간의 오랜 분선의 분식이 라고 본다. 신뢰를 우리사이에 오노날 분선과 극도의 개인주의 가 관계해 있는 사회라고 한다. 즉 나의 주장은 옳고 너의 주장은 정적으로 나쁘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 학교사회에 서 안을 없애야 한다라고 믿는다. 믿음과 신뢰속에서 같이 힘써 교육이 이룩될 수 있다.

젊은이들은 순수하고 이상주의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나 다의 젊은이를 보면 그나 다의 장래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젊은이는 용기가 있다. 기성세대와 같이 비겁하거나 굴복을 거부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양의 젊은이들을 기대하고 여러 운 현실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기성세대 의 침묵을 굴종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은 그 실현성이 매우 막막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학교운영자들이 나름대로 학교의 발전과 운영에 고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단정 해결하 라고 해서 는 아니다.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우리의 대학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대학인은 오노에 사는것이 아니라 내일 을 위해 살고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의 존재가 지기 수업과 학내외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 는데도 그 존재가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대학에서 수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주장을 경청하 이 받아들여 무엇이 옳고 그름일지 분명히 확실한 소신을 갖고 솔직히 주어야만 한다.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일관 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고 오노의 이 불행은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승기를 부여 해야 한다. 충정이 더 비위를 달고 받아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 면 한다. 신도들의 활기 힘은 고분비 없이 새생명 이 탄생할 수 없듯이 우리대학의 오노는 진정론 보다 큰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2기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니터 요원이란 외대학보와 외대인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매주마다 발행되는 신문을 평가 하여 외대학보 기사내용을 보다 일반학생들과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심있는 학우들은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오셔서 신청서를 쓰세요. (외대학보어문부)

흡산의 소리

‘흡산의 소리’란은 외대인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장입니다. 알고 싶은 내용, 대학당국에 대한 견해사항 또는 의견들이 다져져 편집될 수 있는 좋은 목소리를 ‘흡산의 소리’는 묵묵하게 기다립니다.

깨어있는 대학인 ‘왕산 예비역 위원회’

—92년 예비역부를 돌아보면서—

분주하게 더욱더 증진된 취업문 을 두드리는 예비역들의 모습이 남 의 일이 아닌듯 가깝게 느껴진다. 파우더들에게 예비역이라는 눈초 를 받았던 학생회 부위원장도 벌써 92년 이 지나가고 있다.

87년 뜨거운 6공초기의 진풍경을 보고 겪으면서 군복무를 보았던 후 많은 일사상과 약속을 보고, 이 번 동투를 지켜 보면서 후배들을 위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 민 한 편이었다. 예비역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주위의 환경을 보며, 안타깝게 마음으로 있는 왕산 에서 내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왔다.

첫번째로 용인캠퍼스에서 없던 예비역부를 부활시켜서 졸업전 에 예비역의 구상점이 되게 했고 예비역의 권익과 복지부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학기 예비역준원 투쟁에서 큰 관심을 보여준 예비역여러분들 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93년에는 예비역위원회와 왕산 캠퍼스 회관에서 왕산 캠퍼스 자리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예비역들의 주 의의 지원을 바란다. 우선 각과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통쳐서 각 단대 로 그리고 ‘왕산 예비역 위원회’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제2대 해병친우회 회장을 맡으면서 기존의 잘못인식된 대학 해병상을 바꾸기 위해서 일들을 하였다.

이것 왕산에서 얼마 안되는 해병 예비역들은 90년 부총학생회장과, 각과 학생회장, 92년 세계인문학회 총재 임원위원장등으로 활동하고 예비역부의 재건, 왕산 사립 규약대 를 조직하여 학우여러분들과 가까 운 깨어있는 대학인이 되기위해서 지금껏 힘써 왔다.

앞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왕산에서 꼭 필요한 예비 고교의 충추가 될것이고, 결코 학우여러분과 괴리된 해병예비역들 의 모임(노년친구회)이 아닌 왕 산 문을 열어 놓아 교과나 동아리 학회에서 학우여러분들과 같이 호 응할 수 있는 예비역이으로서 학교 고한 자리를 잡고자 한다.

예비역이던 누구든지 자기 전공 취직시절 준비, 공부원시할 준비에 바쁘게 생활을 하여 정작 후배들을 더 남을 경시하는 경향이 없었잖 을까. 그러므로 후배들을 사랑하고 아 깨달던 멋진 선배로서 남게 될 것 이다.

93년에는 완전자에 갖춰서 예비 역들의 부처와 위인들의 권익에 힘 들 ‘왕산 예비역 위원회’에 각과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예비역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최희을 서하 > 노3>

무관심에 방치된 휴게실

떨떨한, 허전한, 이런 단어가 우리 휴게실 분위기를 대변해 준다. 그만큼 지대한 휴게실은 학우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뒷받침하는 실정이라 든그러나 비어 있는 잠자코의 신 문대이다. 적어도 여덟층에는 게시 할 수 있는 신문대에 단 두 종의 신 문만 있다. 게다가 3S정도에 반해 ‘스포츠신문 보지 알기 운동’ 이 학내에 벌어지고 있는데 학생들 보라고 놓아둔 신문은 날라져 지난 ‘스포츠신문’과 ‘한국일보’만, 조급한 신장 쓰면 흥분한 휴게실 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공간에 대한 애착이 너무 없다. 작년 선거때 우리 지선대에서 내걸었던 공약이니 만큼 학생회는 좀더 신장서 주었 으면 한다.

대학인이 진보적이며 지성인이라 면 사회적인 여러 소신들도 능동적 으로 접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지선 대휴게실에서 게 날개의 신문을 게 시되어야 하고 다종의 신문들 보 기 어렵다면 최소한 한자세신문이나 우리 동문용으로 만드는 학보는 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 공 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휴게실을 활 성화할 수 있는 방편이라 생각된다. 지위대 휴게실에서 휴게자를 먹 을 때면 자정대까지 잠이 넘어져 버 리는 현상은 줄어들기 때문에 수를 요 한다는 우스개소리도 듣고, 지금 공 통되어 버리는 커피를 원망하며 한다더 봐야 한다. 조급한 더 서로 노력하자.

<우준식 지선 > 화2 >

정의와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노로써 이기스기 제작중지 당 한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 양방파 인 제작중지 조치에 의해 기자들이 예제 만들어 놓은 신문이 11월이 되 어는 데도 결국 배포되지 못하고 있 다. 독자들도 레인을 다하지 못하 고 있는 지체와 함께, 꺾이는 작 필이 보다는 서서적는 정론(正 論)이 되겠다는 대학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20차에 넘는 기자회견과 주간교 수님의 면담, 학교에 대한 이 문 > 왕산의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들의 제작중지 규탄발문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학교측은 종전의 입장 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이번 주 목요일 신문사 운영 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이지만 신문사 운영위원회는 학생 참여와 언론의 원리 배제사이고 있다. 더구나 외대 원보의 이기스기들 응원하여 제반의 모든 문제를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라는 지어도 정경적인 모양이 있어

아 밑에도 불구하고 92년도 들어 이 때까지 회의 횟수가 10번이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로 기자들이 일일이 운영 위원님들을 찾아 보지않고 어떤 운영위원님은 이에 그 분이 운영위원 인것조차 모르고 계시다는 사실은 실소를 자아내기에 앞서 우리 기자 들을 분노케 하는 사실이었다. 이런 신문사 운영위원 기자들에 대한 규 정을 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기자들이 제기 하고 있는 문제는 학정2.0의 제고 낮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한 할 때때로 일만 삼친 외대 학우들의 동정심으로 나오는 신문 이 주간(수요일)의 변화 한 품으로 운영으로 계속 지어지기를 원한다 리 기자들은 더이상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며 학우대중들의 이해 와 요구를 변형할 자격이 없게 된 다. 그러기에 이기스기와 인권의 1백 여명이 넘는 언론인들은 이번 문 제를 언론사회의 생존권 싸움이라 생

각하며 연대 투쟁을 결의하였다.

주간교수의 임명직 독선에 의해 에는 완전히 초보화되어 있는 시 경하보사서실 보내는 이기스기 투쟁 지지 대치보서 우리 기자들은 그 들의 대학언론에 대한 사랑과 눈초 를 얻을 수 있었고 투쟁의 지난 한 과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회관 2층을 가득 메우고, 한성대의 언이온 승리의 속보들을 정리해서 학우들의 힘으로써 당당 히 펼쳐서 투쟁할 수 있었으며 생각 한다. MBC 투쟁의 성과들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지대한 무관심이 아 니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더욱 끈연히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1만3천 외대학우들도 다시 한번 각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외대 학우들의 단결된 힘만이 이기스기를 저지 할 수 있 을 것이다.

<홍기삼 서하 > 화3 >

외대인의 고전음악감상문화

목요음악반은 20여년 동안 외대 내 음악문화를 이룩하였다. 다양한 공연 활동, 깊이있는 학술 작업 등 을 수시로 행해 오면서 음예들은 외 대에서 그 음악문화의 산 증인이었다.

목요음악반은 매년 가을, ‘경기 음악예타는 제’로써로 한해의 활동을 정리하는 데 급급이 스루비엔나 외대내 음악 문화를 300여명의 외대 인의 음악 선조로 삼은것을 통해 학원하여 행사들 통해 보여 주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사울(11월2 (월) ~5일(목)) 행사와 주 테라토리 로 반영되었다. (사울조사는 목요 음악반 회원 50여명에게 1인당 10장 의 선지를 분배하여 그들의 친구 혹은 선 > 후배 외대인에게 작성을 받아오는 방법을 택했다.)

실문조에 의하면, 외대인은 우선 테이프나 음반(CD포함)을 통해, 그리고 카페 등에서 고전음악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대학생이라는 ‘여유를 갖을 수 있 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주회장

을 통해 고전음악을 접하는 외대인 은 조서에 의하면 대단히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외대인은 매스컴에서도 대학 확 인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비판되는 ‘시계’ 배포의 ‘양광’, ‘파랑새’ ‘백은’, ‘차코프스키의 비활’ 교과용 등을 가장 좋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내용 을 보고 이루어진 정착화제 외대인 의 고전음악감상 선조들은 역시 다 통의 FM제출제의 매스컴 매체의 해 록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최근 목요음악반 회원들의 선 호도 조사에서는 차이코프스키 ‘바 이올린 협주곡’, 드보르 ‘벨로 슬로바키아’, 슈베르트의 ‘아르카디오 소나타’등이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뽑힌 바 있다.)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지휘자)항 목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밝혀 졌는데, 그것은 외대인이 최근에 대 한, ‘유리음악의 재발견’이라한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정봉준을 지 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그 들이 ‘정봉준이라는 한음악인의 연주

세계를 갖기 위해 길로 후 단원한 것 이라고 보기는 힘들다(정봉준, 정경화, 정광화)의 활약과 유익을 얻어내는 한국인의 신분으로도 큰 인정을 받았다는 보도 등을 통해 그 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우리의 지극성을 크게 세웠다고 외대인은 평가하는 것이다.

실문조의 내용은 서두에서 밝 혀나고자 이번 가을을 음예들과 패파 토리에 참여하였다. 음예에 참여함 으로서 외대인들은 그들의 신호호 를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다. 목요음악반의 자료를 통해 조사 된 각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대내의 학술활동 (특히 이카테)으로 이룩한 음악 미적에 관한 성과를 쟁차(유익제 에 관한 해설)에 실었다. 사회적 행사의 연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목 요음악반의 정기음악회가 외대내에 음악 문화를 중흥히 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으면 한다.

<송재영 서하 > 독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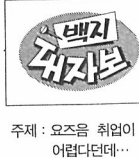
자극동에 가자는게 바로 4학년 취직자리 보장 해 주는 싸움이나니고

—영아 > 87—

아무리 어려워도 투쟁하여 정 취직하라
—취직장정에 잠못이루는 E. Mover—
안기부에 사진 찍으면 취직된 까
—과업중지자—
높은 급 두루 신고, 표정연기 놀아 하는 여성취업 현실, 내가 된 인형되라고 대학 왔나?
—어삼이—
외대발전을 위한 과업을 중단 하시려거든 나에게 일지리를 달라
—졸업 앞둔 너—

취업이 피길래, 그것도 안고 실다.
—독 > 부산갈매기—
구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 로다(To get or not to get that is the question?)
—E > 오름—
눈치만으로도 모든 서두를
—취직하면 무엇이—
‘취업’, ‘과업’ 철칙하는 다르 지만 외대인에게 주는 충격은 같 다.
—연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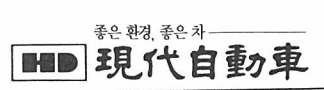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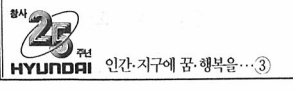
주제 : 오즈를 취업이 어렵다던데...
외대 발전만 되다면야
—EC > 92—



■ 1990년 7월 입사
마북리엔지니어링연구소 설계 2과
이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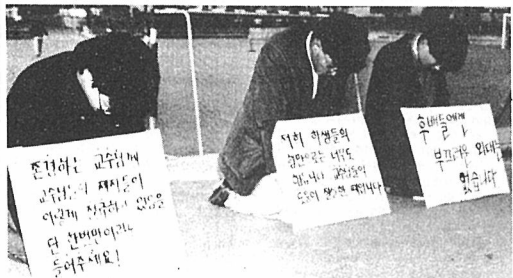
이주한 氏의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이제 3년,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동창자의 한 사람에 오노는 유미히 사... 이만 했다. 대근근시 시정량은 사... 이만. '현재처럼 눈에 들어오... 대기현황판'은 '나쁨' 이었다. 대기현황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울, 파업 장기화 예상

학생측, 본교 발전위해 캠퍼스 이전 요구 학교측, 학사행정 위해 수업참여 촉구



어제 오전 7시경 교수회의장인 대학원동을 앞에서 학생들이 침묵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23일(금)부터 시작한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파업이 사흘째 기간동안 소강상태를 거쳐 지난 주 29일(금) 1시에 열린 파업무명 보고대회까지 집결으로 본교발전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제까지의 파업은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서울, 고시원 94년초까지 이전키로 합의 이행위해 대책위 구성해야

지난 10월 21일(수), 법과대학 학생들이 학생회장실을 점거하고 3명의 학생(이정호(3년), 김경익(4년), 이재창(3년))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고시원 이전 문제가 지난 11월 2일(일) 대학원동이 이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장학금 증액으로 편학 독려해야

학생들의 학업을 고무·독려하여 보다 나은 학풍 수립을 목적으로 여러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본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90%에 달하는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 학생과 금액이 기존 이하라는 지적이 높다.

장학금의 목적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질과 우수 신입생 확보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본교 발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본교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 중대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본교 장학금 지급 현황은 장학금 지급액이 90%에 달하는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 학생과 금액이 기존 이하라는 지적이 높다.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동원농산 고발기사 보도 사업내역 전면 공개로 진상규명 있어야

지난 10월 23일(목)과 30일(수) 한국일보(29일)와 한겨레신문(15일) 사면면 각자 본교에 대한 고발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본교의 명譽를 훼손하고 있다.

본교에 대한 고발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본교의 명譽를 훼손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 확보가 과제



초점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이제부터는 파업과 관련된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리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학교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파업은 학생들의 지리문제에 대해 논의를 기렸다.

Advertisement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about the university's history and current status.

Advertisement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featuring a list of departments and contact information.

힘의 축소 아닌 해소되어야 할 안기부

안기부, 예산심의·국회출석 거부등 초헌법적 거부권 인정 검·경찰에 모든 수사권 이관시켜 안기부 수사권 축소해야

연말 대선정국을 앞두고 사 실상 역대정권의 창조구이자 보존구이었던 초헌법적 국가기 구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대한 관련 법조 개정 논의가 열리고 있다.

최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여론은 안기부가 지난 9월 '정치중립성' 발표, 뒤이은 정치중립성 선언 표명(그리고 10월8일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공개 등)의 태도가 수사권과 연루된 발표와, 또 다시 정권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안기부의 온건한 움직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반인권적·초헌법적인 안기부법 개정은 사회대개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민주·국민당이 비공식적으로나 △안기부의 안기부 수사권 폐지 △국회의 안기부 예산 심결정권 부여 △안기부 조장권·보안감사제도 제도의 일부 개정을 제시했으나 지난 30일 박지회와의 제1차 안기부 개정안 논의에 따라 국회에 대한 논의가 대선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기부의 정치중립성 발표는 합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만 같아 보였다.

알리지도 말 수도 없어 만들어진 안기부법

안기부는 현재 국민기부사(보안사의 후신)와 함께 역대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이상형태의 국가안전기구 중 하나이다. 유신 예산에서도 공개되어 전 89년 제헌정권이 1천300억8700만원의 천문학적규모로 예산이 세워졌던 안기부 예산이 10조 4천 '안기부법'의 예산은 국민기부사 예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안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안기부의 예산은 국민기부사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의 독립가능이란 의인에서도 문제가 된다. 정보의 통제와 확대에 대한 그 안의 조항은 조항을 충실히 안기부의 대외적 근거가 결코 가구가 아님으로 이 안 기중에서 사건과 조선노동당 사건에서 반증된다. 즉 안기부는 이번 김중추 사건 발표로써 안기부에서 이 사건은 지난 1월, 사인 병역회피의 방법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발표했듯이 수정된 자료, 수사기록과 그 정보의 독립을 통해 굳이 대선이 가와도, 안 기중에서도 한 번 박정희의 안기부 법안과 맞먹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국민의 인권, 국가의 자주 권도 뛰어넘는 안기부법

실제로 안기부는 조직정리권 정보수집권인양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인의연행, 기동행위를 통한 지상감시, 변호인접견 차단 등으로 피의자에게 부여된 인권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그 일례로 이번 조선노동당 사건에서 대부분 혐의자가 관련자들에게 구속되었으나, 수색 임명없이 수사를 진행되었고, 사건이 발표되기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세상이면서 60살 노인이 이르는 사건과 무관한 인물까지 일단 연행하는 등

(한겨레신문 9월16일지정) 조 반 인권의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안기부의 대외적 근거가 결코 가구가 아님으로 이 안 기중에서 사건과 조선노동당 사건에서 반증된다. 즉 안기부는 이번 김중추 사건 발표로써 안기부에서 이 사건은 지난 1월, 사인 병역회피의 방법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발표했듯이 수정된 자료, 수사기록과 그 정보의 독립을 통해 굳이 대선이 가와도, 안 기중에서도 한 번 박정희의 안기부 법안과 맞먹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힘의 축소가 아닌 완전 해소되어야 할 안기부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국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안기부의 수사권과정에 보여지는 각종 초헌법적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즉 권력·경찰에 모든 수사권 이관시켜 안기부 수사권 축소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경이나 개진 '범보수 신당' 꿈

가장 새한국당이 창당대회를 갖기도 전에 왜해법 조정을 보이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9·18선언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보수신당의 창당추진단은 방대해진 집권당 최고 위원회의 인자발달과 박정희 의원을 비롯한 반집권세력 의원들의 동조달음으로 정국의 주목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박태준 씨의 신당발족 선언으로 한중류인 신당발족은 '김중추' '김중추' '김중추'로 산산조각난 위기에 처해있다.



신당파들은 이번주를 고리로 왜냐하면, 국민당으로의 흡수나, 군소정당의 창당이나 좀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말 현재 신당을 추진할 세력들은 '원래대로' '국민후보'를 추대하겠다는 '별다른 원칙'에 걸음으로 힘을 보이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로건 이외의 '정경'으로 기존의 보수정당과 차별화하는데 실패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보수정당이 있는데 또 무슨 보수신당이나"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신당이 창당될 때 '범보수' '범보수' '범보수'로 산산조각난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 반여권파의 신당발족이란 그 반여권파의 선전에서 신당에 대한 반여권파의 시각은 지나치게 과잉되었다. 신당의 창당에 10여명의 안기부 정치사추수의 정치지향성을 창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당하는 것이다.

미국당은 '양김청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주영대표 신당세력들을 포용해 세계 포용한다던 이들의 '흡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10월31일 양김청산이 국민당에 흡수되면서 '반당' 당원투표권을 내세우고 정

11월말 현재 신당을 추진할 세력들은 '원래대로' '국민후보'를 추대하겠다는 '별다른 원칙'에 걸음으로 힘을 보이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로건 이외의 '정경'으로 기존의 보수정당과 차별화하는데 실패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보수정당이 있는데 또 무슨 보수신당이나"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신당이 창당될 때 '범보수' '범보수' '범보수'로 산산조각난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 반여권파의 신당발족이란 그 반여권파의 선전에서 신당에 대한 반여권파의 시각은 지나치게 과잉되었다. 신당의 창당에 10여명의 안기부 정치사추수의 정치지향성을 창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당하는 것이다.

미국당은 '양김청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주영대표 신당세력들을 포용해 세계 포용한다던 이들의 '흡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10월31일 양김청산이 국민당에 흡수되면서 '반당' 당원투표권을 내세우고 정

신당세력, 범여권 낙오그룹으로 '양김청산' 대안 없어 내각제 개헌공약을 고리로 국민당으로 흡수 가능성 커

가 잠깐하면 '명명'이 됐다'는 식으로 내각제 개헌을 옹호해 주며 달고 있었다.

이들은 '대중세'와 언론과 '지적'을 정치투기로 삼는 양김을 구시대정치인으로 몰아세운다. 그러나 이들이 그 '구시대 정치'를 청산할 대안은 정경적으로 제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들 이들을 정치이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중에 기반하지 않은, 즉 권력과의 유착을 잘 알지 못하는 '구시대 정치'라는 평가를 듣기 싫어할 것이다. '구시대 정치'라는 평가를 듣기 싫어할 것이다. '구시대 정치'라는 평가를 듣기 싫어할 것이다.

주영대표가 '정경' 내각제 개헌을 시사한 것은 신당세력과 국민당의 원대수수의 일화라고 볼 수 있다. 국민당의 창당에 10여명의 안기부 정치사추수의 정치지향성을 창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당하는 것이다.

TKS세력의 새로운 결속을 의미한다. 박정현을 물리치고 김용환 의원이 대신 TK 수장이 된 것이다.

이들은 '대중세'와 언론과 '지적'을 정치투기로 삼는 양김을 구시대정치인으로 몰아세운다. 그러나 이들이 그 '구시대 정치'를 청산할 대안은 정경적으로 제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들 이들을 정치이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중에 기반하지 않은, 즉 권력과의 유착을 잘 알지 못하는 '구시대 정치'라는 평가를 듣기 싫어할 것이다. '구시대 정치'라는 평가를 듣기 싫어할 것이다. '구시대 정치'라는 평가를 듣기 싫어할 것이다.

주영대표가 '정경' 내각제 개헌을 시사한 것은 신당세력과 국민당의 원대수수의 일화라고 볼 수 있다. 국민당의 창당에 10여명의 안기부 정치사추수의 정치지향성을 창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당하는 것이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정보의 폐쇄성인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초헌법적 위법성은 아니다.

현대인들이 폭로하는 **국민당의 사전 대선운동** 권명희

'범민주단일후보' 결정한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이남주

김대중 대선승리 비책 있다 김택수

안기부가 김영삼을 떠나고 있다 이장기

김영삼이 대통령되면 부산은 잘 살게 되나 유동현

MBC 장악노린 손주한·최창봉의 오판 최성민

한일종합상사의 3대 경쟁력 비교 시승선

21세기 현대자동차, 이대론 살아남지 못한다 임재복

노태우·박태준의 탈당쿠데타 송진우

진 보 적 시 사 중 합 지

11월간

(주) 월간 말 / 값 4,300 원

가수 이선희의 민자당 5백억 채권기
"내가 당한 수도 부자유 부도덕"

● 평양현지 인터뷰 / 이인모부인 김순임씨 ●

"가슴에 묻은 40년 세월이 아속하기도 합니다"

「더디가도 사람살라 하지도 이 작가 조영미가 이인모씨 부인 김순임씨와 장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하였다. 반년 가까운 별리의 세월을 눈물과 보람과 글자로 회억하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감당해온 고난의 속도를 본다. 조영미

한국의 무라카미 하루키, 신세대 소설가들 **윤석양의 수배일기** 양승관

학생체벌, 교육욕력인가 사랑의 매인가 오수연

전환기 세계사의 성격과 진보의 좌표 박형준

우리 시대의 진보란 무엇인가 임상진

서울택시 교섭위원 이렇게 매수됐다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의 5대 의혹

- 1 안기부의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 2 남한 조선노동당은 실제가 있는가
- 3 애국동맹은 중부지역당의 하부조직인가
- 4 '대남공작 지도총책' 이선식은 존재하는가
- 5 안기부의 대선용 공작은 아닌가

정기구독신청 · 본사 (02)711-0461 · 부산광역시 (051)525-4610 · 광주광역시 (062)524-7305

매체비평

피상적 제목·편집 기교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부정비리 초점 흐려



지난달 16일 서울의회의 민자담당위원들의 방명록 국정감사 청소를 옮긴 후 이십세 서울시장이 사과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신문>

국정감사 관련 보도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이 많았던 올해를 마감하며 진행되는 국정감사(이하 국정)는 대형 부정사건의 실제적 진상을 얼마나 밝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대통령 선거 문제로 기전이 절반으로 줄어든 점에서 각 언론과 방송은 제한된 조건에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정치적 제도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 결과를 압축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해야 했다.

국정감사 '가이드 라인' 제시 미흡

이같은 신문의 취보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국경에서 반드시 전술을 밝혀내야 할 사건을 제시하고 각 사건의 의의점을 명확하게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정감사와 관련한 일간신문 보도는 불투명한 비에 의하면 대부분의 신문은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기껏해야 초선과 중앙, 한겨레 등이 예외로 국경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을 정리했을 뿐이다. 이밖에 경향 등이 사설로 국경에 임하는 사설을 게재했으나 대체로 추상적인 논조로 일관해 효과는 '반무'였다.

하루에도 수십가지 새로운 내용과 주제가 쏟아지는 국경을 각 신문이 보도하면서 어떤 사건을 제대로 보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국'을 대충이나마 엿볼 수 있다. '제국'에서 각 신문은 필자를 보았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대학살을 부각한 반면 동야는 '판권선' 문제에, 한겨레는 재벌개혁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들의 감시역할이 부각되지 못했다.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애써 외면하려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극적 효과까지 시도

'부정공무원 1만9천여명 적발', '국세청의 금품제공에 23억 추징', '과격시위 줄고 민원시위 늘다' '물린던 집권여당 주한미군 대공군측 '비리공무원 구속자 2백87명' '미군 범죄자 재판관 행사 1.3% 만원' '30대 재벌에 6대 생보사 여신임용' 등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난 사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MBO도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충격을 분해해 버렸고,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와 연결하지 않고 별개의 뉴스로 밀어치러, 시청자들의 국정감사의 중요성과 활동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KBS 또는 각 당의 국정감사에 대응하는 전담의 소개가 미흡하고 국정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어 국회의 중요업무 중 하나로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라는 김득수 서울시 부교감의 답변을 내보내 지치단체 국감기부담을 정당화시키는 보도를 하고 있다. 또한 'MBC사태는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로 해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유익한 공보적 장관의 담과 권역자 토대 공사장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부패 임하고 성의없는 담, 국회의원의 질의내용과 행정위원회의 답변이 모두 불확실하고 중박한 책임회피 성 발언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신문과 달리 방송에는 각 부처 별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원

다른 대학에선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는 국내 종합대학교로 선 최초의 교육평가를 이번 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원충중장은 '교원연구실 평가 지침서' 교수의 임용과 승진에 있어서 연구실적의 양과 질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한편 한림대 학내교수들의 발달도 우려되며 다른대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더 나은 학내 분위기를 위해 교수 연구실제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각 기관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교수의 신규인용 및 승진 심사제도를 가 지기로 했다. 김중준총장은 지난 14일(수) 제4회 개교기념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위와같은 내용으로 '학사운영체제'를 발표하고 93년부터 시행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는 지난 10월6일(화) '홍익학원 발전을 위한 대학 구성원 공동의약'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학생, 교수, 직원, 노조의 화합 3중제가 모여는 한 결과물이 새재단을 영입하는데 있어 건설한 재단을 영입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는 것을 기본 취인 내용으로 하고있다.

부산대학교

부산의국어대학교는 지난달 26일(토)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최우환, 독이원) 4가 이 학교 강준선 총장을 부수입학 및 기부금 징수 등 영입 무방해 혐의로 부산직원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법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이 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은 88년 15명의 학생을 부수입학

명수당 明水堂 외대의 허와 실

우리대학은 요즈음 여러모로 몹쓸을 앓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외로 사회정치적 혼란과 불만을 표현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학내적인 욕구불만을 터뜨리고 게다가 정부는 대학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자율'이라는 미시어구만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의 근원은 결국 돈으로 귀착된 듯하다. 불심문화, 상업주의, 산업화의 속어는 우리로서는 돈, 돈 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들이 고만고대 외대를 정형적으로 키우려다가도 생각했다. 그러나 기부금 부족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밀고 있다. 6층에 와서는 정권에 밀려온 악재가 계속되었는데 임수정 박사선, 유석양 보안사간인사참謀 포사선 그리고 정원희총리 밀기부세세선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총리사건은 회초리 몇대 맞아와일 일대 풍동



박찬 이론, 왕산 두집살림 그러나 외대발전은 진행중

조희환 <중국어과 교수>

외대의 특색상 비교적 특출한 인물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멀리 있고 그 나머지들은 국내에 있으니 제외파와 국내파로 힘이 분산되어 '속된 경쟁'과 같은 약점이 있는데다 아직 선두 주자가 겨우 50, 60대 연령이다. 셋째, 학생들은 60, 70년대 외대의 영광을 소모하고 외대지대들은 구성원들의 구성불가치에 임하고는 있으나 유구와 주장이 다양성대대가 재정적·법제적 장벽을 돌파하기 힘든 처지이다. 생리해보면 외대의 성세는 국내·국제정세에도 맞물려 있다. 국내적으로는 5공시대에 그 성세

외대다. 따라서 외대의 비약은 오래도록 지연될 것이다. 이제 학생들에게 한미대 교연을 하고 있다. 외대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없다. 그러나 민족적인 대학은 국내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또한 외대는 특유한데 있다. 따라서 속진과 거짓이 설리지는 없다. 60, 70년대의 영광도 지금과 같은 약진에서 영유대 있음을 상기하면서 집안살림 꾸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가 졸업 방법도 먼저 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 봄이 아닐까?

주간취업정보안내

회 사 명	채용방법	인 원	자 격	비 고
(주)백양 공 채	○○	11	일반직-경영, 경제, 무역, 행정, 법학	11월 5일이전
전방주식회사 공 채	○	11	국내영업직-전공제원입을	11월 4일이전
전방주식회사 공 채	○	11	영입직-경상계, 영문과	11월 6일이전
대한생명보험 공 채	○○	11	보통영업원리-인문사회계	11월 6일이전
삼성인드스트리 공 채	○	11	전공제한 없음	11월 3일이전
주식기업사 주 친	1	11	무역직, 영어영문과	11월 6일이전
주식회사세먼 주 친	1	11	영어영문과, 11월 5일부터 근무	11월 5일이전
(주)테크노월드 공 채	40	11	전산가능자, 상정계	11월 15일이전
한국전자통신 공 채	○○	11	행정직-경제, 경영, 법학, 행정	11월 6일이전
유신유일리 공 채	○○	11	영어능통자 및 전산관련학과	11월 31일이전
한국전자주식회사 공 채	○○	11	영입직-경영, 무역, 스페인, 독어	11월 14일이전
심안건설기술공 주 친	남 2명	11	경상계, 영어영문과, 성직사	11월 5일이전
도서출판비른 공 채	○	11	편집부문-영어, 영어교육과	11월 14일이전
대용유통리지역 공 채	○○	11	영입직-전학과	11월 11일이전
가림통상주식회사 주 친	8명	11	불어과-5명, 포어과-3명, 해외	11월 5일이전

*기타 자세한 것은 학생처 취업보도대로 직접담당 문의하십시오.

자아성장을 위한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1. 심리검사
각종 검사도구(지능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흥미검사, 자아개념 등)가 비치되어 있으며, 정확한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심리검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무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과 해석에 따른 상담도 실시합니다.

*심리검사 이용기간
적성검사: 화요일 7.8교시
인성검사, 흥미검사, 자아개념 등 기타검사: 항상 가능함

2. 개인상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공부문제, 진로문제, 대인관계, 정서장애)에 대하여 상담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도와줍니다.

*개인상담이용시간: 월,금,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상담자:
김영윤(소장, 상담심리 전문가)
김순진(상담부장, 상담심리 전문가)
강이연, 박상미, 최지은, 한창준(연구원, 상담심리사)
박효용, 윤현주(상담심리사)

*방법:
개인상담은 전문가와 상담료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중심으로 1회 50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개는 1주일에 1-2번 정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장소:
서울, 용인 학생생활연구소(학생회관 2층)

*이외에도 취업과 진학, 유학을 위한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92년도 신입생들의 인성검사 결과(응답지)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공 고

제 목 : '92학년도 교직원 이수신청서 접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세칙 제15조 및 본대학교 교직원
운영규정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92학년도 교직원 이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 '92년 10월 현재 교직원에게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제4기 등록한 학생으로서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2. 기 간 : 1992. 11.9(월) - 11.13(금)

3. 접 수 처 : 서울캠퍼스-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용인 교무처 교무과

4. 신청서류 : 교직원 이수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1992. 10. 26.

사범대학



민족이 살려낸 농업이 살아야 하고 농업이 살려낸 농민들이 살아야 한다

서울대 논쟁

요즘 서울대학교 관악교정 곳곳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대자포스터가 세워져서 눈에 띄고 있다. 또한 버리미에 '농민사수' '농대학비' 등의 구호가 적힌 초록색 띠를 맨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서울대학교를 출입하게 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대학생인 농민생명과대학(이하 농대생) 학생들이다. 이들 농대생대수 1300여명은 지난 8월 31일부터 현재 수업에 있는 농대생 900여명까지 합하면 총 2200여 명이 넘는 '농대생'이 되고 있다.

현재 농대생대수 8831인 두정대학에 편입된 '농대생'은 농대생대수의 38%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농대생'이 농대생대수의 38%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농대생' 4) 군은 '농대생'이 농대생대수의 38%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농대생'이 농대생대수의 38%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전의 양면관계로 자리잡아야 할 학자와 대선

패배주의를 낳고 있는 것이 저 농대생들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이 점차 쇠퇴해가고 있음은 농민과 농촌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농촌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농촌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원대 - 건설한 재단 영입요구

“선정학. 이제 노노래할 차례다. 불타는 장승 괴롭히는 장승...”

학원의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단거리 반대파(학원)의 움직임이 거세졌다. 이 움직임은 재단 영입, 총학생회 등이 결성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재단 영입, 총학생회 등이 결성되고 있다.



다리는 대학당국의 답변을 듣고 잠시 난관에 부딪혔지만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현재 이들의 의지이다. 그러나 21일(토)에는 3당 대정부 후보들을 초청해서 농대생과 농대생, 농민사수의 문제를 놓고 대담도 개최되고 있다.

학원에 두개 학과의 번갈아 가며 강의실 사용을 할 정도로 사용시설을 분배해왔던 것은 지난 10월 13일 이 학교 교직원 재단사(이하 재단)의 2백여명 부대표와 미국으로 도피해서 비호받고 있다.

현재 '농대생' 4) 군은 '농대생'이 농대생대수의 38%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농대생'이 농대생대수의 38%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원대 투쟁도 순탄치 만은 않았다. 지난 10월 29일 총학생회장이 “경남 건설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학위원장에서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서원대 투쟁도 순탄치 만은 않았다. 지난 10월 29일 총학생회장이 “경남 건설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학위원장에서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동차 팔기위해 농산물 죽인다...”

대선과 관련된 농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도권에 대한 단원포럼(이하 단원포럼)과 가평 협동조합 등이 주도하고 있다.

대선과 관련된 농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도권에 대한 단원포럼(이하 단원포럼)과 가평 협동조합 등이 주도하고 있다.

편견지수

정부의 수확기 7~9%인산, 8월5일~9월말까지 수확기간이 10월말까지 연장되고 있다.

대선과 관련된 농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도권에 대한 단원포럼(이하 단원포럼)과 가평 협동조합 등이 주도하고 있다.

대선과 관련된 농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도권에 대한 단원포럼(이하 단원포럼)과 가평 협동조합 등이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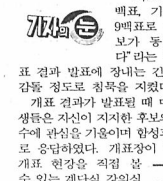
조성우 전농 정책실장을 만나

수확기 단축의 경제정책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

수확기 단축의 경제정책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 이는 '농대생'이 농대생대수의 38%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확기 단축의 경제정책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 이는 '농대생'이 농대생대수의 38%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확기 단축의 경제정책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 이는 '농대생'이 농대생대수의 38%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1월 2일 9백표로 양 후보들 동점이다. 이는 33년만에 양 후보가 동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1월 2일 9백표로 양 후보들 동점이다. 이는 33년만에 양 후보가 동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1월 2일 9백표로 양 후보들 동점이다. 이는 33년만에 양 후보가 동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1월 2일 9백표로 양 후보들 동점이다. 이는 33년만에 양 후보가 동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1월 2일 9백표로 양 후보들 동점이다. 이는 33년만에 양 후보가 동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서원대 투쟁도 순탄치 만은 않았다. 지난 10월 29일 총학생회장이 “경남 건설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학위원장에서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dvertisement for 'Host Family가 되어주세요!' (Become a host family!) and '일본어 회화' (Japanese conversation) classes.

Advertisement for '15日 東醫 한마당 특강!' (15th East Medical Hall Special Lecture!) and 'My Job My Life 스텐워드스' (My Job My Life Stewardess).

Advertisement for 'My Job My Life 스텐워드스' (My Job My Life Stewardess) and 'K.S.A의 전담지도' (K.S.A's dedicated guidance).

Advertisement for '삼육외국어학원' (Sam-yuk Foreign Language Academy) and '러시아어 회화 개실' (Russian language conversation class).

표류하는 외대! 학원자주화로 살리자 <여름특집>



“모교의 발전에 벽돌 한장이라도 되고 싶다”

정부가 각 대학의 사립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의 동문·학부모들이 일어나는 대학의 재정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대학의 동문참여 모습

서강대는 지난 86년 1월에 '서강대학교 발전추진위원회'를 결성. 동문·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시설확충, 장학사업, 교수 충원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난 6월, 지하3층의 '강화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승영회'의회를 발족. 국내에 있는 동문 2만여명에게 사업의 취지를 알렸다. 이 건물은 신축될 서강대측은 이미 임대수익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사용할 예정이다.

표를 세우고 있다.

본교의 동문조직화 움직임

본교의 경우는 지난 91년 4월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추진위원회'(회장 박병수, 전총장) 발간인내회를 갖고 1백여명 회원 100여명 '외국학 동문연구개발부'를 건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본교의 특수성을 살린 이번 계획을 위해 현재 동문·학부모, 현직 교수

10월 5일 현재, 동문주소록 29개 학과를 대상으로 1만4천1백 55명을 전신화했다. 하지만 용인캠퍼스는 자료의 부족으로 중앙대학교 대신이과를 제외하고는 전신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전신화 작업은 동문협력부에서 신발 한 각 학과의 모니터실원들에게 배포 보충되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94년 본교 창립 40주년을 맞아 이번 작업으로 완성된 주소록을 책으로 묶어 발행할 예정이다.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장학사업 이외의 뚜렷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동문조직화의 모교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판단 속에 그동안 총동문회에 대해 불신을 지각하며 '민주동우회'(회장 송영, 작가) 등 동문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으나 한계점을 보이며 유명무실화되었다. '용인캠퍼스'는 86학번 중심의 '민주동우회'가 현재 활동하고 있으나 동일 학년단간의 모임이라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모임의회(이하 학협)를 설치하고 학부동년들의 대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학협은 87년 당시 학부동년들이 모교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판단 속에 그동안 총동문회에 대해 불신을 지각하며 '민주동우회'(회장 송영, 작가) 등 동문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으나 한계점을 보이며 유명무실화되었다. '용인캠퍼스'는 86학번 중심의 '민주동우회'가 현재 활동하고 있으나 동일 학년단간의 모임이라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동문, 학부모 참여 방향

현재의 '본교발전'요구와 관련하여 동문·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내외의 실



본교 발전을 위해서는 범의대인 자원의 기부를 설립해야 한다.

려는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부의 설립은 앞으로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기구의 조성과 맞물려 적극적인 심의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동문의 참여에 있어서도 그러한 적극적인 심의과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이 전임교수가

는 동문의 참여에 있어서는 모교의 발전에 "작은 힘을 모아" 모교의 발전에 벽돌 한장이라도 되고 싶다는 연세대 동문들의 움직임은 모범이 될만한 태도일 것이다.

대학부 >

동문주소록 작성등 동문관리 방안 모색해야

동문·학부모 참여유도하는 학내외구 설치 시급

동문·학부모 참여에 있어

이러한 소모임 형식의 동문회를 제시하는 총동문회의 변의 위상 및 역할을 살펴보면 더욱 모교에 대한 기여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학과들이 학과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후배들의 이후 사회진출을 위해 동문들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문협력부'의 신축을 통해 동문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본교의 경우 동문협력에 있어 대학원과 교수들의 참여가 유익한 점이며, 학부생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 학부모 참여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본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전지숙(정과·경외)은 "동문주소록을 전신화할 당시 유익한 배려를 주시길 동문주소록을 쓰고 돌아왔을 때 본교에 대한 정이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교 발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전신화를 시작했지만 총동문회의 도움이 아쉬웠다"고 말한다.

전문 학부모 참여에 있어

총동문회(회장 김원우)는 88년 3월 30일 '92학년도 동문 장학회'를 발족하고 88년 6월 '동문장학기금 5억원 조성'

앞/실수

○미리보라. 공영이는 황순태(비서)이다. 지난 2월 24일은 황순태(비서)에 이상도 못하고 추락할 듯. ○아무리 수석인체로서는 정면이 불투명하지만 일간지에 '축하'한 황순태의 힘은 제2의 황순태를 그리 아를때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다. ○제단나오리들. 학생들의 실수를 탓하느라 내내 모란. 깃을 공평해야 할 터. ○내내가 팔팔해 지는 데도 정신 차릴 줄 모르는 자분기모기(비서)가 있는 데... ○노동자의 괴를 실컷 뱉어 버리고 버려지어 아예 날 함미초 모두를 죽이겠다는

모교의 발전에 벽돌 한장이라도 되고 싶다

이러한 소모임 형식의 동문회를 제시하는 총동문회의 변의 위상 및 역할을 살펴보면 더욱 모교에 대한 기여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학과들이 학과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후배들의 이후 사회진출을 위해 동문들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문협력부'의 신축을 통해 동문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본교의 경우 동문협력에 있어 대학원과 교수들의 참여가 유익한 점이며, 학부생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 학부모 참여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본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전지숙(정과·경외)은 "동문주소록을 전신화할 당시 유익한 배려를 주시길 동문주소록을 쓰고 돌아왔을 때 본교에 대한 정이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교 발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전신화를 시작했지만 총동문회의 도움이 아쉬웠다"고 말한다.

전문 학부모 참여에 있어

총동문회(회장 김원우)는 88년 3월 30일 '92학년도 동문 장학회'를 발족하고 88년 6월 '동문장학기금 5억원 조성'

단대별 특색살린 취업대책 수립해야

취업난 타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취업난 타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취업난 타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모교의 발전에 벽돌 한장이라도 되고 싶다

이러한 소모임 형식의 동문회를 제시하는 총동문회의 변의 위상 및 역할을 살펴보면 더욱 모교에 대한 기여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학과들이 학과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후배들의 이후 사회진출을 위해 동문들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문협력부'의 신축을 통해 동문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본교의 경우 동문협력에 있어 대학원과 교수들의 참여가 유익한 점이며, 학부생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 학부모 참여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본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전지숙(정과·경외)은 "동문주소록을 전신화할 당시 유익한 배려를 주시길 동문주소록을 쓰고 돌아왔을 때 본교에 대한 정이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교 발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전신화를 시작했지만 총동문회의 도움이 아쉬웠다"고 말한다.

전문 학부모 참여에 있어

총동문회(회장 김원우)는 88년 3월 30일 '92학년도 동문 장학회'를 발족하고 88년 6월 '동문장학기금 5억원 조성'

전문 학부모 참여에 있어

총동문회(회장 김원우)는 88년 3월 30일 '92학년도 동문 장학회'를 발족하고 88년 6월 '동문장학기금 5억원 조성'

취업난 타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취업난 타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취업난 타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Table with 5 columns: School Name, Total Enrollment, Male, Female, Total. Rows include Sejong, Dongguk, Yonsei, and others.

Large advertisement for '비둘기협판' (Pigeon Brand) featuring various notices, job openings, and community events. Includes sections for '찾는 사람, 찾는 물건', '소망한다', '이문별', '왕산골', '동문회', '공명선거에 힘쓸 일꾼', '축하합니다', '제4대 대성협 정·부 조합장 선거', '제4회 수화발표회', '제20회 정기음악회', '취업준비생총회', '제4회 취업박람회', '제4회 취업박람회', '제4회 취업박람회'.

